

칠레-아르헨티나간 안데스 국경 철도 터널 프로젝트

- 칠레와 아르헨티나간 안데스국경 철도터널 건설 프로젝트 추진에 대하여 최근 양국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
 -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기 위한 상기 안데스 철도 터널 프로젝트는 철도 터널이 해발 2,500미터의 높은 위치에 건설되고, 터널 길이가 23km이 달하여 동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면밀한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가 필요하며 공사금액이 3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프로젝트임
 - 상기 프로젝트는 CASA(Corporacion America S.A.)사를 비롯한 5개 업체로 구성된 Consortium이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
 - CASA(Corporacion America S.A.)사 Eduardo Eurnekian 회장은 현재 동 프로젝트의 Consortium은 아르헨티나 3개사, 브라질 1개사, 칠레 1개사 등 5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나,
 - 일본의 Mitsui & Co. 사가 동 사업 참여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고 있으며, 칠레의 대형 해운회사인 Agunsa와 철도회사인 FEPASA 역시 참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, 5개사로 구성되어있는 현재 Consortium이 확대되어 국제적인 인지도를 확보한 Consortium으로 재구성 될 것으로 전망
- 한편, 상기 안데스 국경철도 터널 완공시 연간 통과 물동량은 연간 5천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
 - 동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CASA사 Eduardo Eurnekian 회장은 브라질, 아르헨티나, 칠레 3국을 포함한 남미국가들이 나날이 증가하는

물류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할 수 있는 안데스 국경을 통과하는 국경 철도 터널 건설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피력

- 이와 관련 동 사업이 '08. 8월 아르헨티나와 칠레 양국 정부로부터 사전 타당성조사를 수락하는 Interes Publico를 이미 확보하였는바, '09년12월에는 사업시행자를 국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

□ 아울러, 동 프로젝트는 '09년 하반기 까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'09. 12월 사업자 선정을 위한 국제 공개경쟁입찰이 실시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으나, 세계적 경제위기 등 국내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정대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더라도 2010년 이후에나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

- 동 터널 건설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시공사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동 사업 추진의 주체인 Consortium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바, 동 사업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은 Consortium 참여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주재국의 11.25(화)자 경제일간지 Diario Financiero

<상파울루 사무소 제공>